

치료감호 살인 전과자 도주 '관리 허술'

병원 측 규정 위반 및 능장대응...전자발찌도 외출할 때만 착용 '허점' 보호관찰소 직원 부족으로 대응 골머리...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광주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살인 전과자가 폐쇄병동을 탈출했다 하루 만에 검거됐다.

병원 측은 살인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이 전과자가 달아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신고하지 않았고, 폐쇄병동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병원과 교정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비판이 나온다.

보호관찰소도 인력 부족으로 가출소·가종료자 등을 제대로 전담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무부 위촉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훼손에 따른 감시를 할 수 없는 데다 이번처럼 병원 측의 능장 대응이 이뤄질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나온다.

보호관찰소 인력 부족으로 한 직원이 250명 가량의 치료감호대상자·가출소·가종료자를 전담하고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대상자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광주에서는 99명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9명의 보호관찰소 직원이 관리 중이다. 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는 3850명이지만 관리 직원은 63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사실상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관리상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광주 한



장맛비 속 능소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9일 오전 경남 남해군 이도면 인근에서 우산 쓴 주인이 능소화가 활짝 핀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다.

차퇴진 촛불 주최측 "軍 신뢰 회복하려면 기무사 해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집회 무력진압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은 9일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며 기무사 폐지를 요구했다.

또 "기무사는 댓글공작 개입이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관여했다"며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는 여러 차례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를 고려하면 기무사는 쿠데타, 혹은 군의 정치 개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있을 수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당시 한민군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이들은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당시 한민군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이들은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당시 한민군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터키 열차사고 사망 24명으로 늘어

터키 북서부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사망 24명, 부상 338명으로 늘어났다.

레제프 아크다그 터키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전날 테키르다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2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애초 사망자는 10명이라고 알려졌지만 수가 늘었다.

터키 매체들은 아흐메트 데미르칸 보건장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고로 33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24명이 여전히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터키와 그리스 국경 지역인 에디르네를 출발해 이스탄불로 향하던 열차가 테키르다에서 탈선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36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선로 밑 지반이 침식된 탓에 열차가 탈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흐메트 이슬란 터키 교통장관은 사고가 난 선로가 올해 4월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비축' 중독 英 여성 결국 사망

영국에서 지난 6월 말 신경작용제 '노비축'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8일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독극물 중독 증세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돈 스테지스(여·44)가 이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스테지스는 연인 찰리 롤리(45)와 함께 윌트셔주 에임즈바리의 한 건물에서 발견됐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롤리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러시아 이종수 파이 출신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에 대한 암살 시도에 쓰였던 것과 같은 노비축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경찰은 스테지스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 중이다. 스테지스 커플 사건이 스크리팔 부녀가 혼수상태로 발견됐던 솔즈베리에서 불과 1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데다, 똑같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노비축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사건 배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비축은 1970~1980년대 구소련에서 개발한 신경작용제로 북한 김정남 암살에 쓰였던 맹독성 물질 VX보다 독성이 5~8배 강하다.

전문가들은 정화작업 이후 스테지스가 누군가가 버린 노비축에 우연히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스테지스의 사망을 보고받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의회에서 "러시아 정부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러시아 측이 버린 노비축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 정부는 국제사회 앞에서 러시아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이했다.

일간호사, 환자에 '독극물 링거' 연쇄살인

2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환자 연속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해당 병원 간호사가 제포됐다. 간호사는 계면활성제 성분의 소독액을 환자들에게 투입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경찰은 간호사로부터 "사망자들 외에도 20명의 환자들에게 소독액을 주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7일 NHK 등은 2016년 9월 환자 48명이 3개월간 잇따라 사망하며 '연쇄 살해' 의혹이 제기됐던 요코하마(横浜)시의 한 병원에서 당시 80대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 병원 수간호사 출신인 구보키 아유미(久保木愛弓·31)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아유미는 경찰 조사에서 "최소한 일을 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미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용의신상에 올랐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그는 2016년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엮이게 돼 충격적이다", "빨리 범인을 찾아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유미가 링거로 계면활성제 성분 소독액을 투입해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80대 사망 환자 2명의 몸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계면활성제는 액체의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독성이 강하다. 아유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게 보기 싫었고, 내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가족에게 이를 설명하는 일이 귀찮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유미로부터 "약 20명의 다른 환자들에게 계면활성제 성분의 소독액을 투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나머지 40여명의 사망에도 아유미가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려이는데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회가 한정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